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99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개최

2월 8일(월)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 집중적인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한 교회학교 겨울 계절학교가 이번 달 일제히 개막된다.

대학부가 내일부터 2박 3일 간 순례자의 집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등부 19일(금), 유년부 21일(주일), 유치부 27일(토)부터 각각 2일 혹은 3일간의 성경학교를

개최하며 사랑부도 25일(목)에 일일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또한 중등부는 23일(화) - 24일(수) 양일간, 고등부 22일(월) - 24일(수) 2박 3일간, 청년부 28일(주일) - 3월 1일(월) 1박 2일 간의 수련회를 개최한다.

교회학교들은 계절학교 개최에 앞서 생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게 될 이번 계절학교 기간을 매 주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교회의 올해 표어인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각 부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계절학교가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 교회 교육목표대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 교회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소속되는 계기가 되도록 독려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부서	실시일	장소	강사
유치부	2월 27(토) - 28일(주일)	교회당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유년부	2월 21일(주일) - 23일(화)	교회당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초등부	2월 22일(월) - 23일(화)	교회당	이종윤 목사, 이성득 목사
중등부	2월 23일(화) - 24일(수)	교회당	이종윤 목사, 정홍재 전도사
고등부	2월 22일(월) - 24일(수)	순례자의 집	이종윤 목사, 정대일 전도사
대학부	2월 8일(월) - 10일(수)	순례자의 집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청년부	2월 28일(주일) - 3월 1일(월)	순례자의 집	이종윤 목사, 이만열 · 정홍재 전도사
사랑부	2월 25일(목)	교회 별관	이종윤 목사, 조대영 전도사

성경통독사경회

성경통독사경회가 설 연휴인 15일(월)과 16일(화)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3층 예배실에서 열린다. 사경회는 낭독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으로 본문을 따라 읽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읽기에 편한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을 준비하면 된다.

회비는 식비와 간식비를 포함하여 1만원이다. 참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

2월 학습 · 세례식

학습 · 세례식은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

2월 학습 · 세례식이 24일(수) I · II부 예배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14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21일(주일) II부 예배 후 각각 실시된다. 이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22일(월) 오후 7시 301호실에서 실시하는 추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문답은 23일(화) 오후 7시에 있다.

제 1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 · 강사 · 일정 확정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주제로 3월 개강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의 주제와 강사와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제 15학기 주제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어떻게 이 격변하는 세상에 선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제에 맞추어 다루게 된다.

제 15학기는 3월 29일에 개강하여 6월 7일까지 공휴일인 4월 5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에 10주간 강의를 하게 된다.

제 1교시(오후 2시 - 3시 30분)에는 이종윤 목사가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며 제 2교시(3시 50분 - 5시 20분)에는 영성 목회, 치유 목회, 영상 목회, 교육 목회, 전도 폭발 전략 등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에 맞는 특강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확정된 일정과 강의, 강사는 옆의 표와 같다.

제 1 교시	제 2 교시
여호수아 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영성 목회와 예배 갱신 정진경(신촌성결교회)
	예배와 찬양 곽상수(연세대)
	치유 목회의 방법과 실제 정정숙(충신대)
	영상 목회와 그 사례들 김향안(한국교회정보센터)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 성장 성종현(장신대)
	교육 목회 모델 온준관(연세대)
	개교회 전도 폭발 전략 나경일(주안장로교회)
	한국 교회 설교 유형과 경향 박종순(충신교회)
	민족 75% 전도 전략 이필섭(비전2020운동본부)
	설교 준비 이렇게 한다 김선도(광림교회)

이사야 강해

다메섹에 대한 경고

이사야 17장 1-3절

이사야 17장에는 이스라엘을 때리시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앗시리아, 바벨론, 다메섹을 차례로 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아람 또는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남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사막지대인데 비해 다메섹은 백향목이 아름답게 자라고 수목이 무성한 곳이 있으며 산수가 수려했습니다. 또한 견고한 암석으로 둘러싸여 농작물과 과일의 소출도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은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경고의 내용

(1) 다메섹은 무너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의 다메섹은 보석과 같이 자랑스러우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1절). 실제로 다메섹은 BC 732년에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의해 파멸 당했고(왕하 16:9), 그 후에 다메섹 성을 재건했지만 또다시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다시 파멸을 당했습니다.

(2) 다메섹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양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2절). 정복을 당한 사람은 더 이상 그 땅에 거하려 하지 않고 정복한 자는 필요에 의해서 빼앗은 성이 아니므로 정복한 후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곳에 양무리만 놀게 됩니다.

(3) 다메섹은 망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다메섹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다메섹이 요새가 되며 본문은 이 요새가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3절). 결국 남은 소수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천대받는 이들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들에게 위로나 덕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 다메섹이 멸망당하는 원인

본문은 먼저 다메섹이 무너지고 다음에는 아로엘이 망하며 마침내 에브라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순서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기 위해서 주변을 먼저 정리하십니다. 이 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멀리서부터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당신을 잘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

양치는 초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2절). 아로엘은 다메섹을 지키는 군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곳도 양치는 초장으로 변하게 된다고 했으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리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뜻하지 않게 앗수르의 복병인 디글랏 빌레셀 군대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일은 이사야 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17:1-3)



이종운 목사

가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열락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을 때리십니다. 다메섹은 자기 죄값으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하여 매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리아가 북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맺는 것을 보면서 앗수르는 수리아의 세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들이 남 유다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수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사실 수리아는 앗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모의하거나 계획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남이 평안히 사는 것을 시기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싸우는 것을 말려야 할 수리아가 오히려 전쟁을 도발하는 자가 되었으니 수리아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다메섹이 망하는 모습

다메섹이 유다를 치는 일에 동원이 되면 화려한 다메섹은 돌무더기가 되고 아로엘은

지자가 예언한 지 3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고보서 4장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장사를 하여 어떤 이익을 내리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만 장사를 하다가 폭풍을 만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망하게 하십니다만 망하는 그 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메섹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자의 충동을 받은 수리아는 돌무더기가 되고 군대가 주둔했던 아로엘은 양치는 초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최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표준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길동무

가분수 전성시대

노문환 (장로, 장년부 부장)

가만히 서서 사방을 둘러 보면 여기저기 뒤뚱거리며 우쭐대는 가분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노라고, 몸 바쳐 봉사하겠노라고 떠들어대지만 조금 안쪽을 들여다 보면 자기 욕심과 정치적인 야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오고 있다.

어디 정치인들뿐이라. 경제계, 사회계, 교육계, 심지어는 종교계의 지도자들인양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분을 토해내곤 했던가.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만 앞세우는 가분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키부츠에 다녀와서

이스라엘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박윤정(대학부)

서울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다. 비행기표와 비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키부츠에서 일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았던 것이다. 여자 경찰들도 총과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생각했다.

출발 전 대학부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예루살렘에 계시는 목사님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그 다음날 눈을 뜨자 어리둥절했다. 낯선 곳에 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디나 천국'이라는 말을 새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키부츠센터로 향했다.

키부츠(kibbutz)는 서로 주어진 일에 종사하며 소득을 똑같이 나누는 공동체다. 이스라엘에는 약간씩 다른 특색을 가진 크고 작은 키부츠가 200여 개 있다고 한다. 나는 북서쪽 바닷가 가까이에 위치한 800명 정도가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곳은 스케줄에 따라 매일 일이 바뀌었다. 식당 정리, 주방에서 설거지(제일 힘들), 채소다듬기, 닭장에서 달걀줍기, 공장에서의 단순노동, 농장에서 과일따기 등의 일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6-8시간 일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친구들과 어울렸다. 연령층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영어를 더 잘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

오호 통재라! 야 가분수들의 행진의 대열대열에서 누가 우리를 견제내라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 그러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자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지도자이고 만나고 싶은 우리의 이웃이며 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 먼저 나 자신에게 요구하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에 옮기자.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자. 가분수들의 전성시대를 끝내도록 하기 위하여...

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얼마나 황송한 이름이던지... 가끔씩 시간을 내어 성지도 여행했다. 이스라엘에 간 때가 1월이었는데 비도 자주 오고 꽤 추웠다. 예루살렘에는 3년만에 눈도 왔다고 했다.

한인 목사님의 소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리스도(Christ)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커피숍에서 3개월 간 일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회는 120년 전 영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소리없이 증가하고 있다. 알려지면 핍박을 받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온 몸과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기독교 지역에 있었고 숙소는 아르메니안 지구의 한 집에서 외국인 친구 몇명과 같이 생활했다. 아침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각국의 크리스찬을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통곡의 벽으로 산책가곤 했는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달빛이 비치고 조명으로 빛나는 통곡의 벽에서 검은 복장을 한 유대인들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성경을 읽는 모습. 그뒤로 멀리 보이는 감람산, 겐세마네 동산, 황금사원...

이스라엘에 온 후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연습을 수없이 했다. 떠나기 전날 몇몇 친구들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만남의 축복을

순례길에서



다시 받은 선물

박영옥(집사, 제 5교구)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지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와 정신을 차린 이들은 "내 다리 어떻게 하는거야"라며 정신없이 울어댔습니다. 교통사고로 별안간 한 다리를 잃게 된 아들의 절규 앞에서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한없이 한없이 울다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 정신을 추스리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다리를 목숨과 바꾸셨다. 네가 비록 한 다리는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 믿는다. 아니, 버린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새로운 것이 담겨진 영의 날개를 달아주실 거야."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며 또 내 자신을 위로하며 그간 힘들고 긴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며 애쓰고 애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며 오로지 하나님께 아들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젠 이전보다 더 크고 든든하며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의 다리로 우뚝 선 아들 선구! 처참한 상황에서 살려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신앙의 많은 친구들... 온 교회가 하나되어 기도해 주신 것, 만 입으로도 다 감사를 전할 길 없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선구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손에 의지해서 오랜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들을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족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뿐입니다.

한가지 소망이 더 있다면 선구가 정상적인 걸음을 하루 빨리 걷게 될 것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좋은 배필을 만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떠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8교구 가족모임을 마치고

사데교회 성도들처럼

유사라(제 8교구)

1월 28일 오후 7시, 8교구 가족 모임을 갖기로 한 날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 과연 일마나들 참석하실까 하는 걱정을 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있었고 식당엔 8교구 식구들로 가득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들답게 얼굴에는 모두들 웃음이 한가득 넘쳤다.

이종윤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데교회에 몇몇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사데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 받는 자들이 되어 흰옷 입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해 주셨다.

기쁨에 넘쳐 있는 장로님들과 연로하신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 청년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음성, 한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질서를 지킨 가운데 음식

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던 초대교회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우리 8교구는 집에서 교회에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리는 먼 거리에 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고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8교구 가족들은 사데교회 성도들 같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비록 거리는 멀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은 8교구 식구들이 으뜸이라고 자부한다.

우리전도회

올해도 승리의 깃발을!

한성옥(집사, 루디아 제 4회장)

계절을 잃은 것 같은 올 겨울. 오랜만에 눈이 와 겨울을 맘껏 하얗게 칠한 기분이다. 은색 눈발이 상도동 고개를 넘어 용산을 휘돌아 반포동까지 흘날리던 날, 뜻밖한 사랑으로서로 세워지며 섬기며 사랑 나누기를 힘쓰는 루디아 제 4지회를 소개한다.

요즘 같이 각박하고 어려운 때 가슴과 가슴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서로 형편을 나누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전

도회만의 기쁨이요 자랑이리라.

살림이 넉넉치 않아 거창한 사업계획은 못 세웠지만 아마도 주님의 손에 루디아 4지회가 올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복으로 채워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각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기를 작정하는 영적 군사들! 너나 할 것없이 모두 6명이 암역원이다. 회장 한성옥 집사, 부회장 김명식 집사가 한 해를 맡아 혼신의 힘으로 수고할 것이다. 마치 르비딴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역할을 서로 담당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 전도회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고 2000년을 향해 전진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65:24)"라고 하신 좋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들쭉이는 신앙적 열성보다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종인이 될 것을 오늘도 다짐해 본다.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9일(화) 한국기독교 교단연합회 환편식 및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박두호 장로·한성옥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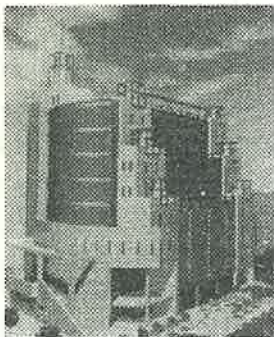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 * 조원섭·김혜련 집사 가정에서는 매월 새가족환영회 때마다 예쁜 꽃송이를 만들어 새가족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 * 박두호 장로(차량위원장)는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 찬바람 속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차량위원에게 겨울잠바를 선물했다.
- * 최난수 권사는 8일부터 수련회를 갖는 대학부 학생들을 위해 옥류를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새 예배당 건축 현장 소식●



- 귀가길 건축 현장 방문, 기도 이어지길 -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에 따르면 새 예배당 건축 공사가 예정 공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주말까지 공사 내용은 흙막이 및 CIP LW공사, 공동가설 및 세륜장 시설을 완료하고 골토 공사에 들어갔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깊은 관심 그리고 물질적 헌신을 강조하면서 가급적 주일예배를 마치고 귀가길이라도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기도하신 후 가실 수 있기를 권장했다.

- * 제 2권사회 회원은 8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 * 다음 주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은 설 연휴인 관계로 한 주 연기하여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요한 선교회 회원은 22일(월) 유치부와 함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방문을 하게 된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의 겨울 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2. 성령통독사경회를 위해
3.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